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진주시 덕진구 인우동1기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술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진주시 덕진구 민성동로 55, 8층 805호(민성동, 오케이타워1기)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6년 1월 23일(금) 제 3252호

산업부, 전북 '5극3특 성장엔진' 협력 본격화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전북 방문
도, 신재생·AI모빌리티 등 제시
새만금 '국가전략테스트베드' 강조
RE100산단·현대차투자지원건의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22일 김정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북을 방문,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과 5극3특 성장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자치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전북을 방문, 5극3특 성장엔진 산업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북이 선정한 성장엔진 산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부와 전북도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장관과 김관영 도지사, 양선화 미래첨단산업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는 5극3특 성장엔진 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첨단AI 모빌리티 ▲푸드·웰스토크 3개 분야를 선정을 희망한 배경, 지역적 강점, 향후 육성 방향을 설명했다.

전북은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시기적 필요성, 산업기반의 차별성, 사업 최적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 산업을 요청한 가운데 기술고도화와 기업집적, 인재양성을 축으로 산업생태계 조성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는 새만금이 첨단산업 실증 가능한 국가 전략 테스트베드로서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중점 역설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패키지를 통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투자유치의 연계를 가능하게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와 새만금 매가 샌드박스를 결합하면 신속한 상용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어 전북이 당면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새만금 RE100 선도 산업단지 지정과 한-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현대차그룹 전북 투자 지원, 전주 탄소산업 AX 실증산단 선정, 완주산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등 5대 핵심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정관 장관은 "전북의 산

업 여건과 정책 준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성장이 곧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산업부 장관 방문으로 5극3특 성장엔진 산업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중앙정부와 공유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기업이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완주 문화산단에서 자동차 부품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근로자 오찬을 함께했다. 오후에는 군산 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소부장 기업과 현장 토론회를 진행했다.

전북테크노파크, 전주상공회의소, 캠퍼스융합기술원 등 혁신기관·경제 단체장들과 만난 간담회를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산업의 강점 및 잠재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장정철 기자

국주영은, 조선왕조실록 매개 남북교류 모색 학술세미나 주최

의원·전문가·시민 등 50여명 참석
이인영 기조강연·학계토론 등 진행
전북실록벨트·북측유적 연계 추진



국주영은 의의원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실에서 도의원, 학계, 시민단체, 통일·문화유산 분야 전문가,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왕조실록과 남북교류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국주 의원은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조선왕조실록을 매개로 한 평화적 학술교류와 문화유산 공동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인영 국회의원(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우리역사문화연구원 박대길 소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전주대학교 홍성덕 교수, 전북거래하나 김성희 사무총장, 전

북특별자치도의회 영영선 의원, 후백제시민연대 조상진 대표가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선왕조실록을 매개로 한 남북공동 조사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전북 실록 벨트와 북측 실록 유적지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좌장으로 나선 국주영은 의원은 "조선왕조실록은 전쟁과 분단을 넘어 살아남은 기록이자, 남과 북이 함께 지켜온 공동유산"이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전북이 실록 벨트를 바탕으로 남북역사문화교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박근혜 만류에...장동혁 단식 중단

8일 만 중단 선언 병원 이송
'쌍륙검' 요괴로 단식 시작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단식 시작 8일만에 중단했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당내 의원들이 반발하자, '통일교-공천뇌물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으나, 청와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외면과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단식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단식 농성해온 국회 로터리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님들, 당원동지들, 국민과 함께한 8일이었다. 함께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응원하는 마음 잊지 않겠다"며 "좀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

라며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장 대표는 국회 분청 앞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를 타고 양지병원으로 이송됐다.

장 대표의 이날 단식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주셨으면 한다"며 단식 중단을 당부하자,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를 만난 뒤 곧바로 떠났다. 장 대표 단식 중단의 출구가 박 전 대통령이었던 것이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투어패스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선정

지역관광패스 부문 우수 브랜드
도내 14개 시·군 관광자원 한 장에
프리미엄권·외국인 전용 등 다각화

전북도는 대표 관광상품인 전북투어패스가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지역관광패스 부문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은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하

는 상으로 국내 산업 발전과 소비자 만족에 기여한 우수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전북투어패스는 도내 14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전북투어패스는 201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광역형 관광패스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의 주요 관광지, 체험시설, 전시·문화공간, 교통, 음식점 등을 하나의

패스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광역형 관광패스다. 관광객이 별도의 입장권 구매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돼 여행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도내 14개 시·군에 분산된 관광자원을 하나의 여행 동선으로 연결해 특정 관광지에 집중되던 기존 관광 구조에서 벗어나고, 체류형 관광과 지역 간 관광 균형에 기여해 왔다. 2025년 기준 약 14만 매 판매, 자유이용시설 110여 개소 운영, 이용자 1인당 평균 4회 이상 가맹

점 이용을 기록하는 등 실제 소비와 체류로 이어지는 관광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투어패스를 통해 관광객의 이동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프리미엄권, 외국인 전용 상품, 교통 연계 상품 등 상품 다각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넓히고 있다.

/장정철 기자

오늘이 아름다운 무주

자연특별시 무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행문의 1899-8687 http://tour.muju.go.kr 자연특별시 무주

전북도, 계량기 동파 예방 상하수도 현장 관리 강화

한파 대비 시·군 대응체계 점검 보온덮개·보온재 설치 여부 확인 복도식 아파트 등 취약지 집중 예비계량기 비축·복구체계 유지

전북도는 한파에 따른 계량기 동파와 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도내 시·군 상하수도 부서를 대상으로 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관리·대응체계 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상하수도 점검반이 시·군 상하수도 부서를 방문해 동파 예방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와 비상 대응체계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시군별 자체 동파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보온덮개·보온재 등 사전 보호조치 이행 여부 ▲동파 예방 홍보 활동 추진 여부 ▲비상 대응체계 운영 상태 ▲교체용 예비계량기 등 자체 비축 현황 등을 주요 점검 사항으로 확인했다.

점검 과정에서 동파에 취약한 복도식 아파트 등 일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도 병행했다. 점검반은 시·군과 협조해 △계량기 보온재 설치 상태 △주인 홍보문 게시 여부 등을 살펴보고, 관리사무소와 읍·동에 한파 시 보온 관리와 안내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한파 기간 동안 상수도 비상



전북도는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와 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시·군 상하수도 부서를 대상으로 관리·대응체계 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전북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동파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복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정청래, 혁신당에 합당 제안...조국 "속고 중"

"지방선거 따로 치를 이유 없다" "이재명 정부 성공, 원팀 필요" 박수현 "사전 교감 발표 합의"



정청래 대표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달라"고 양당이 그동안 협력해온 사실을 상기시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고, 혁신당이 당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칩시다"라면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당과 민주당이 따로가 아닌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할 때"라면서 "두 당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거듭 합당을 요구했다.

이어 "혁신당 창당 당시 나는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면서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으나 21대 대선은 같이 치렀다"고 혁신당과의 인연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독재 정권 심판을 외쳤고, 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며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고, 12·3

대표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조국 대표와 사전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 대표와 조 대표는 이 문제로 여러 차례 교감했고 어제 (민주당이) 합당 제안을 발표하는 것에 합의했다"며 "조 대표가 어떤 응답을 할지 모른다"고 양당이 사전에 협의했음을 밝혔다.

박 대표인은 '청와대와도 사전 조율을 했느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단위들과는 대체로 공유된 것으로 안다"며 사전에 조율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의 합당제안에도 거부 입장을 보인 혁신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전주시 전북도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늦은 오후, 정대표를 만나 해당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들과 함께 숙고했다"고 답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72억 투입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운영기관 공모

분쟁조정·예방 등 5개 분야 추진 권익보호 운영기관 모집 착수 리더아카데미·이동상담실 확대

전북도가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사업을 추진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사업은 ▲소비자 가치 주도 역량 강화 ▲소비자 정책 협력 ▲신속·공정한 분

쟁 해결 ▲건강한 거래 환경 조성 ▲소비자 피해구제 자율 공모 등 5개 분야, 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7억2천만 원의 도비가 투입된다.

최근 온라인·비대면 거래 확산과 신유행 상품 증가로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품 정보 부족과 복잡한 거래 구조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행정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14년부터 '소비자 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해 매년 20~30명의 소비자 전문가를 양성해 왔으며, 이들이

고령자·어린이·다문화 이주여성 등 소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비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관과 전통시장, 지역 축제장 등을 찾아가는 '소비자 이동상담실'을 운영해 소비자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신속한 분쟁 조정과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방문판매·전화권유·통신판매업 등 특수거래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감시단을 운영해 매년 약 2만 개 업소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불공정 거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시

제 점검과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실태조사, 이동전화 판매점 허위·과장 광고 조사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안 사업도 자율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소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사업의 의미가 있다"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는 전북자치도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 부서 평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최종 운영기관이 선정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이원택, 새만금 네거티브 공세에 정면 반박...“흠집내기”

"신항 민자 표류...국비 전환 주도 1단계 진행 중 하반기 개장 예정" "수변도시 공정률 45% 내년 준공"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새만금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 "하위 사실로는 전북을 이끌 수 없다. 사실 확인 없이 흠집 내기식으로 유포되는 주장들은, 정책과 비전을 평가해야 할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정문을 통해 "최근 제기되는 일부 주장들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새만금의 핵심 국가사업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새만금 신항, 수변도시, 재생에너지, RE100 산업 전략 전반의 미래 전환을 이끌어 온 책임 있는 당사자였다"며 "새만금 신항에 투자기업이 없어 개항이 어렵고 이는 이원택 의원의 책임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다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장기간 표류한 사업"이라며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민자 방식이 검토됐으나,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이원택 의원이 민자 추진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국가 재정사업 전환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2019년 새만금 신항은 5만 톤급 2선석 규모의 국가 재정사업으로 확정돼 본격 착공됐고, 현재 1단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2026년 하반기 개장이 예정돼 있다"며 "배후부지와 추가 선석에 대해서도 재정사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 수변도시가 개점휴업 상태"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수변도시 조성을 전담하도록 한 결정은 이 의원이 청와대 재직



이원택 의원은 22일 '새만금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 사실 확인 없이 흠집 내기'로 유포되는 주장들은 도민 기만 행위"라고 정면 반박했다. <사진=이원택의원실>

당시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라며 "현재 수변도시 1공구는 공정률 약 45%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구상은 이원택 의원의 대표적 정책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8년 새만금 내측을 세

계적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비전을 기획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며 "이를 계기로 에너지융복합단지, 국가종합실증단지, 해상풍력 연구시설, 그린수소 실증단지 등이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들어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위 사실과 왜곡된 공격



전북소방, 전남 광양 산불 확산에 장비 긴급 투입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21일 오후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서 발생한 산불 확산 대응을 위해 펌프차 9대, 협지 펌프차 1대, 회복지원차 1대 등 장비 11대를 투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산불은 21일 오후 3시 30분경 옥곡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가 산으로 번지면서 확대됐다.

산림·소방당국은 헬기와 진화차량을 투입해 초기 진화에 나섰으나, 강풍과 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불길의 확산됐다. 소방청은 21일 오후 5시 5분 제1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에서 5대를 우선 투입한 뒤, 같은 날 오후 8시 제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에서 펌프차와 협지펌프차 25대를 추가 지원에 투입했다. 전북을 포함해 광주, 경남, 대구, 창원 등 소방력이 동원됐으며 전북소방은 전주완산소방서 펌프차 등을 현장에 보냈다.

전북소방은 야간에도 급수 지원, 방어진 구축, 대원 회복 지원 등을 수행했다. 소방청은 22일 오전 9시 30분 국가소방동원령을 해제했다.

/김은지 기자

으로는 전북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며 "전북을 이끌 힘은 흠집 내기가 아니라, 검증된 성과와 분명한 비전에서 나온

다. 약의적인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 비방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목기자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해 알아야 할 도로표지판



미끄러운 도로
(주의표지판)

내리막 경사
(주의표지판)

노면 상태
(보조표지판)

안개 지역
(보조표지판)



신유정의원상림동메타세쿼이아강전정재발방지“강구”

전주시 '기술적 검토 부족' 인정



전주시의회 신유정의원(사진)은 “도시환경, ‘보행 안전’, ‘미세먼지 대응’에 큰 효과를 표출하는 생활인프라인 상림동 메타세쿼이아 강전정

관련한 △명확한 기준 △책임 있는 절차 △부서 간 협업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유정의원(조춘·여의·혁신동)은 전주시장을 대상으로 상림동 메타세쿼이아 강전정(과도 전지) 사례와 관련해 서면질의를 진행하며 전주시 도시수목 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신 의원은 상림동 메타세쿼이아 강전정(과도 전지) 사례는 산림청 고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녹지부서 협의나 전문가 자문 등 필수 의사결정 없이 추진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가로 수의 수형관리 방법〉

메타세쿼이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른 가지와 혼합한 가지, 위로 자라는 가지 등을 솎아주는 정도로만 관리하며, 자연수형을 유지하면 자연히 원추형을 유지 • 11월이나 3월경에 수관선 아래에 구멍이를 파고 유기질비료를 밑거름으로 시비하고,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에 조경용 고품질비료를 덧거름으로 시비 	
수고(m)	20~30		
수형	원추형		

▶ **매뉴얼이 제시하는 전정 방향은 골격 제거가 아니라 ‘슈아주기 수준의 약전정’ 중심이며, 수형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산림청 「나무 잘라내기 매뉴얼」, 2022)**

또 “반복될 경우 시민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재발방지 대책과 사전 협의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상림동 메타세쿼이아 강전정에 대해 “안전 민원 해소를 위해 전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지 방식과 강도에 대해 수목 생육 상태를 반영한 기술적 검토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관련해 신 의원은 “도시수목 전지가 생활권 안전과 도시환경에 직결되는 공공 행정인만큼, 산림청 기준에 따른 약전정

원칙과 전문가 검토·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범기 시장은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라 약전정을 원칙으로 하고, 강전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신 의원은 “상림동 사례는 이러한 원칙이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되지 못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기준 준수와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유정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도시

수목 관리 기준과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고, 부서 협의와 시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관련 개선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떨어진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향후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시민이 정책을 이해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시민과의 대화 자리 마련 등 소통의 과정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경제산업국 '2026년 신년브리핑'

SI 산업 혁신 도약
민생 체감 '전주' 경제

전주시가 AI와 첨단기술을 중점을 둔 지역산업 고도화로 미래산업기반을 다져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 경제산업국은 22일 시청 브리핑장에서 '2026년 신년브리핑'을 갖고 AI 기반 산업 혁신을 산업 정책 전반에 접목해, 산업·기업·민생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신년브리핑에는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우범기 시장의 경제정책 기조가 담겼다.

시는 AI, 첨단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수소·탄소·드론 등 지역 주력산업의 역할을 재정립해, 기업 유치부터 기술 실증, 사업화, 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현장 중심의 산업 성장 흐름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기업들이 피지컬 AI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협업지능 기반 피지컬 AI SW 플랫폼 생태계 조성 사업과 AI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AI 전환을 지원하고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AI중심 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그리고 나노·탄소소재 등 지역 강점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실증·사업화를 통해 첨단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R&D 인프라 연계와 전문인력 양육으로 기업 중심의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시는 수소·탄소·드론 등 기존 주력산업은 AI와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 산업으로 기능을 확장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

여가기로 했다. 수소 산업은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국가 공모사업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수소가업을 육성하고, 수소농이체협관 건립·운영과 친환경수소차 보급 등으로 수소산업 지변을 확대해갈 예정이다.

탄소 산업은 산업통상부 소부장 기반구축사업을 토대로 UAM용 열가소성 프리프레그 국산화 공정과 재활용 탄소섬유 기반 고성능 복합재 실증을 본격화하고,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달솔루션 센터를 산상미 설계 완료 후 착공해 기업의 기술 검증과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드론 산업은 기업 지원 장비 19종을 활용한 기술 지원과 신규 과제 발굴을 지속하고, 전주국제드론스포츠허브를 거점으로 교육·체험·가치 테스트를 연계한 산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져 나간다.

산업 성과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율을 통한 자금 융통성 확보 △내수 위축에 대응한 해외 판로 확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제조혁신 및 마케팅 역량 제고 등 자금·관업과 AI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AI 전환을 지원하고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AI중심 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그리고 나노·탄소소재 등 지역 강점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실증·사업화를 통해 첨단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R&D 인프라 연계와 전문인력 양육으로 기업 중심의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시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이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유통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결합한 통합지원 플랫폼 ('가칭)사회연대 상생마당'을 연내 준공·개관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해 자금 투자와 후속 지원을 연계하는 등 체계적인 육성 사업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제14호 발간

종광대 토성, 후백제 최초 실물 유적·유물 산포지 최소 2개소

현지 보존이 추진되는 종광대2구역에 후백제 최초의 실물 유적인 토성뿐 아니라 유물 산포지가 다수 산재해 후백제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결정적 장소라는 의견이 나왔다.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22일 종광대 토성을 조명한 'JIRI 이슈브리프 제14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2008년 전주시에 보낸 공문에서 종광대 구역 사업부지 내 유물 산포지 2개소의 존재를 언급했다.

또한 해당 구역은 발굴조사 시 유적 확인 가능성이 높아 사업계획 조정 또는 장기간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능한 범위에서 현상 보존 방안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이다.

결정적 전환점은 2024년 1월 시작된 시굴 및 정밀 발굴조사로, 사업부지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 발굴에서 그동안 일부 지도와 문헌에만 남아 있던 후백제 도성 성벽으로 해석 가능한 축성 구조(관측



종광대 토성, 후백제 최초 실물유적 현장

등)가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연구원은 특히 종광대 2구역에서는 기반층·외적층·관측층으로 이어지는 축성 양상이 확인되어, 종광대가 단순한 토루가 아니라 후백제 전주 도성의 외곽 방어 체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성과는 '실물 자료 부족'이라는 후백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후백제 왕도 전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특히 연구원은 이번 이슈브리프에서

후백제 역사문화권 사업이 백제(공주·부여·익산 세계유산)와 신라(경주 역사도시 정비), 가야(국가 주도 광역 프로젝트) 등 다른 문화권과 비교할 때 추진 속도, 국가정책 반영, 광역협력체계 구축 측면에서 보완 여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다.

연구원은 종광대 토성의 보존·정비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현장 전 북측별지지도 지정에서 국가지정으로의 승격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가지정 추진 시 국비 지원 비중이 확대될 수 있어(재원 구조는 관련 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의 협력 수준에 따라 재정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또한 발굴 성과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현장 공개·해설·전시·교육 등 시민 체험형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발굴 과정부터 지역사회가 유산의 가치를 공유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www.jiri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전주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 건립 '순항 중'

노인복지관공영추진장등임주예정

전주시 서부권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책임질 전주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교육과 돌봄, 문화, 여가 공간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전주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이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효자4동과 효자5동, 혁신도시에 등 서부권에 전주시 전체 인구의 17.7%(11만 687명, '25년 12월 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복지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부지면적 3,799㎡, 연면적 7,183㎡,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복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문화적·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사

업비로 복권기금 7억3000여만원을 확보해 차질 없는 공사 완료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관이 완공되면 내부에는 △지하 2층 주차장 △지하1층 경묘식당·북카페·주차장 △지상 1~2층 노인복지관 △3층 시니어클럽 △4~5층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갖추게 된다. 시는 운영 주체가 다른 각 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주민이 쉬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자 복합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복합복지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올해 준공을 목표로 복합복지관 인근(효자동2가 1240-7번지)에 전주효자어울림공영주차장을 주차타워로 건설해 총 191면의 주차 면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시군의회의장協,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 촉구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지정
반도체 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가결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2일 군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96차 월례회에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촉구하는 3건의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협의회는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이 제안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 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과 진안군의회 동창욱 의장이 제안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이 제안한 '새만금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 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재생에너지(RE100) 사용이 수출기업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대규모 태양광·해상풍력 조성 여건과 스마트그린 국가 시범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기반을 갖춘 새만금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지”라고 RE100 산업단지 지정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2일 군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96차 월례회에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촉구하는 3건의 건의안을 가결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송전망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전력 수요 분산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도체 국가산단을 새만금 등 전북 지역으로 이전·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에서는 “장기간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농생명용지 7공구

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이를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관우 협의회장은 “새만금은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전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 전략 공간”이라며 “정부가 국가산업 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RE100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건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 보험사기 일당 5명 검거 구속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교통과는 고가의 외제차를 중고로 구입해 하천 등지에 침수시키거나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 1억68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주범 2명을 구속,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고교 동창생들로 벤츠 차량을 중고로 구입해 침수가 용이한 장소를 몰래 선택한 후 2025년 3월경 전북지역 몰고 양식장에 고의로 빠뜨리고 차량 전 손 처리비 등 명목으로 95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지인·사촌을 범행에 가담시켜 가·피해자 역할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1억6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험사기 의심 제보로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 등 9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범행을 입증한 후 여죄 및 공범을 밝혀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상호 통화내역을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이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계속된 수사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주 피의자들을 구속하고, 확인되지 않은 범위가 더 있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문체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사업 선정

전주시는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비발행)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예산을 지원해 선수단의 훈련환경 선진화, 경기력 향상을 통한 지방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공모에 전주시청은 태권도와 수영, 사이클 등 3개 팀이 공모 신청해 총 1억425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은 훈련용품구입 및 국내의 전지훈련 참가 등을 위

해 사용될 예정으로 선수단 운영 내실화와 경기력 향상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배드민턴팀은 2025년 문체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7년까지 3년간 총 2억7천만원의 국비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성과 창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 및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기안전공사-한성대 'ESG 공공-민간 협력'

자원재활용 캠페인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 탐색 기회 제공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한성대학교와 손잡고 ESG경영 분야 민간·공공 협력의 새 길을 열어가기로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22일, 서울 한성대학교 상상관에서 한성대학교(총장 이창현)와 'ESG경영 실천과 에너지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이날, ESG경영이 오늘날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한 시대적 관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ESG 정책 공조체계 구축 △우수 성과사례 공유 △에너지 신산업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 교육 등의 협력 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또 공사는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ESS 등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현장 탐방의 기회를 찾아 지원하고, 자원재활용 공유 사업, 취약계층 안전 캠페인 등 양 기관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화영 사장은 "AI와 에너지 대전환이 미래 국가 발전의 화두가 된 시대에 정의적인 청년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학 등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 임직원-농업인 한품 '다짐'

미래성장동력 확보
전북농협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22일 '2026년 농정활동과 농업현안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시·군지부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시·군지부 전략회의는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농정 핵심 시·군지부 역할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도내 시·군지부장과 지역별 부 임직원들은 전략회의를 통해 △시군별 농정활동 공유 △공공 통산 협력 △중점 추진 등을 결의했다. 특히 '농심전심' 확산과 함께 농

농진청, 논 토양관리·규산질 비료 벼 깨씨무늬병 예방

사전 방제 안내문 배포 농업인 교육 등 홍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해 전북·남, 충남, 경북 등 주요 벼 주산지에서 확산한 '깨씨무늬병' 재발생을 막기 위해 겨울과 초봄 사이 논 휴지기에 할 수 있는 논 토양관리 및 땅심(지력) 증진 관리 기술을 안내했다. 깨씨무늬병은 곰팡이균이 벼 잎 등에 달라붙어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 병이다. 초기에는 잎에 깨알 같은 작은 갈색 반점이 나타나며, 심해지면 벼 줄기(이삭목)와 벼알도 갈변한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깨씨무늬병 피해 논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벼가 실제 흡수해 이용할 수 있는 규산(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곳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따라서 벼 재배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검정을 의뢰한 후 유효 규산이 157mg/kg 미만으로 확인되면 올해 모

내기 전까지 규산질비료(토양개량제)를 살포해 보충해야 한다. 규산질비료는 3년 1주기로 지속 투입·환원해야 토양 내 유효 규산 함량이 증가한다. 또 양질의 흙 섞어주기(객도)와 유기질 퇴비 등을 투입해 땅심(지력)을 높여야 한다. 퇴비를 살포한 논은 반드시 18cm 이상 깊이갈이 한다. 깊이갈이를 하면 토양의 완충능력이 좋아져 벼가 비료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 보급종 사용, 종자소독, 적정 시기 모내기(이앙), 이삭 패기 30~40일 전 논물 빼기(중간물떼기), 논토양 영양상태에 맞춰 완효성 비료와 밑거름·이삭거름 주기 등 재배 관리로 깨씨무늬병을 사전 방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깨씨무늬병 방제 및 논토양 지력 관리 방법을 안내문으로 제작,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배부했다. 또 2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깨씨무늬병을



포함한 벼 생육 단계별 주요 병 진단 및 방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00헥타르(ha) 이상 깨씨무늬병 피해가 발생한 시군(21개 시군 29,379ha)을 집중적으로 관리(1~3월)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실시 중인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안내해 농업인 참여를 독려하고, 피해가 큰(피해율 50% 이상) 필지 소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 출범

산업부·경찰청·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이하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하고 1월 22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작년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기부를 비롯해 산업부, 공

정위, 지식재산청, 경찰청, 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함께 모인 협업 창구이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분담이나 정보소통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들은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처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주요 논의될 예정이다. 첫째, 기술탈취 사건 발생시 부처간 공조·역할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

한 지원사업을 연결해 피해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칭)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 도입·운영방안 등이 향후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둘째,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예상되는 내용들을 사전 조율하며,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같이 여러 부처 소관법령에 동시에 입법되는 제도의 경우, 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기술보호 전문인력 공동

활용과 같이 부처별로 보유한 기술보호 관련 역량·권한을 서로 연결하는 협업과제를 기획·발굴해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한다. 오늘 출범식에 참석한 부처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회복, 관련 정보교류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노영석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 노동조합,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제54년차 사업계획안 등 심의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정영호)은 지난 21~22일 양일간 정읍 JB아우름캠퍼스에서 제54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정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200여명의 대의원 및 한국노총 전북본부 권기봉 의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윤석규 위원장 당선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각 지부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박춘원 은행장도 함께 해 대회를 축하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노조 53년차 활동 및 결산 보고, 회계감사 의견서 채택, 54년차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금융산업노동조합 대의원 선출 등의 안건이 상정돼 대의원 표결에 부쳐졌다. 이튿날에는 정영호 위원장과의 소통 콘서트, 2026년 경영전략 발표 및 은

임실교육지원청 '함께 실천하는 교육' 교육계획 설명회 열어

AI 활용 교육·민주·생태 역사교육 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유호선)은 22일 초·중·고 교직원과 교육가족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 임실교육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더불어 교육가족과 함께 만들어 가는 임실교육의 방향을 공유했다. 임실교육지원청은 2026년 변화된 핵심과제로 △AI 활용 교육 △민주·생태·역사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유아 발달 및 놀이·방과후 지원을 제시하고, 이를 임실의 교육 여건에 맞게 현장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함께 실천하는 교육'의 대표 사

례로 '수업나눔주간'과 '임실청소년축제'를 개선·강화한다. 수업나눔주간은 교사가 주도해 수업의 변화를 공유·확산하며 학교 간 배움의 연결을 강화하는 장이다. 2025년부터 군청과 함께 운영하는 임실 청소년축제는 학생이 기획과 참여의 주체가 되는 학생 주도 축제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임실형 학생자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 지역 학생의 교육 참여 기회를 넓히는 '임실에듀라이딩'과 자연과 마을이 교실이 되는 임실형 생태교육을 통해 학교 안과 밖을 잇는 지역 연계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호선 교육장은 "2026년 임실교육



은 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2025년 11월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전북지역 11월 금융기관 여신은 2025.10월+1,639억원→11월+510억원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 +1,454억원 →-870억원 감소,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85억원 →+1,381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차입주체별로는 기업대출 +1,392억원 →+299억원 축소, 가계대출 -67억원 →-100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수신에서는 2025.10월-18,051억원→11월+6,84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 -20,935억원 →+8,945억원 증가 전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2,884억원 →-2,096억원은 감소세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http://www.bok.or.kr>)에 수록돼 있다. /김영태 기자

(사)경영중소기업협 전북연합회 '중소기업 성장' 지원

'중소기업 사업설명회' 개최
(사)한국경영중소기업협회 전북연합회(회장 노갑수)는 '2026년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설명회'를 유관기관 합동으로 개최했다. 지난 21일 개최된 설명회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각종 지원정책을 효과적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지역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했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방향 △R&D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출·판로·마케팅 지원 정책 △인력·노무·경영혁신 관련 주요 시책 등을 중점으로 다뤘다. 설명회 중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위주 안내가 참여 기업들 대표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노갑수 회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 시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한국경영중소기업협회 전북연합회는 앞으로도 정책 설명회, 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을 통해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참여형 역할극으로 학교폭력 예방나선다”

올해 초등 420여 학급서 운영...갈등 상황 참여형 교육, 학생 공감 이끌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역할극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 초등학교 4~5학년 420여 학급에서 '학교폭력예방 역할극'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역할극은 실제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역할극으로 구현함으로써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참여형 교육이다.

특히 회복적 정의 실천을 핵심 가치로 삼아, 갈등과 상처의 책임을 묻는 데서 그치지 않고 관계 회복과 공동체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고,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할극은 4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가 참여한다. 강사들은 실제 연극 배우들로, 현장 교원과 사전 시나리오 검증 및 수업 시연을 진행한 뒤 교육에 나서게 된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학교폭력예방 역할극 강사 역량 강화 연수를 갖고, 회복적 정의 실천을 위한 강사



의 역할 등을 안내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창원대서 청년과 소통

“수도권 일극 구조 한계 도달” 김 위원장은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수도권 일극 구조가 한계에 도달한 지금, 부울경이 개별 지자체 단위로 분절된 채 경쟁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청년의 삶’에 광역 성장의 중심 주제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수도권 일극 구조가 한계에 도달한 지금, 부울경이 개별 지자체 단위로 분절된 채 경쟁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청년의 삶’에 광역 성장의 중심 주제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정철 기자

전북교육청, 한국어학급 유치원까지 확대 운영

외국인 학생 학교 적응 도와 의사소통등관계 형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한국어학급을 확대한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초등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한국어학급을 올해는 유치원까지 확대, 총 15개 학급에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어학급을 유치원 단계까지 확대함으로써 유아기부터 학교생활에 필요

한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일상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에 따라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지도와 학급 운영에 부담이 컸던 학교 현장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어학급은 다문화학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유치원은 군산 새만금초병설유치원과 전주 금평초병설유치원에 설치된다. 초등학교는 군산 소룡초·산북초·새만금초, 익산 익산초·이리백제초·이리북일

초, 전주 전주금평초, 정읍 한솔초·정읍 서초, 김제 월성초 등 총 10개교에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이들 학교에는 교당 2,000만원 내외의 예산 지원과 한국어학급 전담 정규교사(담임)를 배치한다. 특히 학급별 소규모 편성과 학생 수준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또래 관계 형성을 돕고, 교실 수업 참여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1월 말 한국어학급 설치교 관리자 및 담임 교사를 대상

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수에서는 한국어학급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학생 지도 및 학교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운영 역량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유치원까지 확대되는 한국어학급 운영은 다문화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고, 외국인 학생 밀집 학교의 교육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부산학생교육문화관 박수진 관장, 평생교육 운영 공유

부산학생교육문화관 박수진 관장은 22일 ‘2026년 평생교육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부산군 지역 도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지역 교육 여건 개선 및 학생과 지역주민 참여 평생교육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수진 관장은 △재구조화 사업으로 개선된 시설 현황 △2026년 평생교육 운영 계획 △지역아동센터 및 다문화 가정생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역 수요에 기반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추진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경기의 원, 김슬지 의원과 함께 문화관의 주요 사업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화관은 도의회의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 운영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문화관은 다문화·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 교육·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확대해 부산 전 지역에 균형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군산대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 공모 발표평가회’ 개최

국립군산대학교(총장직무대리 엄기욱)는 지난 20일 ‘2026학년도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 공모 발표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평가회는 융복합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획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에는 총 7팀이 참여했다. 참여한 총 7팀은 △전공 간 경계 교육과정 구성 △산업·사회 수요 반영 △학생 중심 학습 설계 등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평가위원들은 교육과정의 ‘창의성’, ‘융복합성’,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더불어 각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실제 교육 현장 적용 가능성과 향후 확산 가능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립군산대 모듈형교육과정혁신센터 정현준 센터장은 “2026학년도 학생 수요 기반 공모 방식을 도입해 수요자 중심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군산대 김효중 교육혁신처장은 “융복합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립군산대는 지난 2023년부터 소단위 교육과정 마이크로디그리(MD)를 도입해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을 본격화했다. 이후 모듈형 컨버전스 학사학위과정



(MCD)를 도입해 융복합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총 81개 MD과정과 34개 MCD과정을 편성해 총 118개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열기구 사용 시 지켜야 할 수칙

- 1. 시간, 온도 설정 하기**
 온도는 26~30도 장시간 사용은 피하기
- 2. 멀티탭 중복 금지**
 문어발식 연결은 과열·합선의 주범!
- 3. 라텍스, 전기장판 조합금지**
 라텍스는 열이 빠져나가지 않아 위험! 얇은 이불 사용 하기
- 4. 주변 정리 필수**
 가연성 물질은 최소 20cm 이상 떨어뜨려 두기

정읍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자기혈관 숫자 알기의 날’ 운영

정읍시보건소가 오는 26일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마다 시민들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돕는 ‘자기혈관 숫자 알기의 날’을 운영한다.

‘자기혈관 숫자 알기의 날’은 시민들이 정기적인 기초 건강검사를 통해 본인의 혈관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행사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보건소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무료로 측정해주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의 1대 1 맞춤형 건강 상담이 이뤄진다. 시는 검사 결과 혈압이나 혈당 등이 높게 나온 고위험군 대상자에게는 병원 진료를 안내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고 합병증 없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2026년 청년 외식 창업
미식 문화 확산 전략 마련

익산시가 지역 음식문화의 확산과 외식 산업 활성화를 이끌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의 2026년 운영 로드맵을 확정했다.

익산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최재용 부시장 주재로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를 열고, 2026년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운영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을 활용해 미식 도시 익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1층 ‘계화림’은 닭구이 전문점 등 외식업 운영을 기반으로, 중앙동 치킨로드 입점 업소 대상 메뉴 개발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2층 ‘익산다이어움 청년공유주방’은 외식 창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배달형 외식업 운영 공간을 최대 2년까지 제공한다. 3층 ‘요리문화교실’은 비건 베이킹과 가족 요리교실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정기 강좌를 운영한다.

최재용 부시장은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은 단순한 교육 장소를 넘어 청년 창업가의 꿈이 실현되고, 시민들이 미식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이라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미식 거점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개청식·신년 대화 개최

군산시 조촌동이 22일 개청식 및 신년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조촌동 행정복지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테이블 파티를 시작으로 축하공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신년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조촌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랑고도장구반의 열정적인 장구 공연과 성악 듀엣의 무대가 연이어 펼쳐지면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새롭게 문을 연 조촌동 행정복지센터(조촌동 909-4)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906㎡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민원실, 복지상담실, 입산부육계실, 주민쉼터가 마련됐으며, 2층부터 4층까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4개실과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등 주민 편의 공간이 대폭 확대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조촌동 청사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행정과 생활 밀착형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형 전략사업 발굴 ‘본격화’

정책 실행 가속화 대응
‘정책연구전략사업 발굴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군산시가 새정부 국정기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사업 발굴 용역’ 착수보고회를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부시장을 비롯해 국·소장, 국가 예산 관련 주요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정책경영연구원 관계자에게 연구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을 보고받았고 국·소

장 및 주요 부서장이 참여하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군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새정부 국정 기조와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함께 향후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전환과 재생에너지·기후 대응 분야와 같은 새 정부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는 주요 정책 아이템을 선제적으로 검토·정리해, 향후 국비 사업과 공모 과정에서 군산시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민 부시장은 이날 “새 정부 국정

기조가 실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도 사전에 준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용역은 단순한 정책 정리가 아니라, 군산시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군산의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사업 도출과 부서 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용역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되며,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통해 단계별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0.26% 상승

5,371필지 공사...영동동
롯데마트 인근 최고가

익산시는 2026년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0.26% 상승하며 완만한 보합세를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인 3.35%와 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인 0.78%를 밑도는 수준으로, 지역 토지 가치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지침이 되는 것은 물론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

과, 토지 감정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익산시의 표준지는 총 5,371필지다.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 10명이 지난해 8-12월 토지 이용 상황과 입지 여건, 실거래 동향 등을 면밀히 조사해 가격을 산정했다.

공시 결과에 따르면 익산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영동동 롯데마트 인근 상업용지로, m²당 469만 8,000원을 기록했다.

최저지가는 여산면 태성리 소재 임야로 m²당 1,130원으로 결정돼 토지 용도에 따른 뚜렷한 가치 차이를 보였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reatyprice.kr)에서 누

구나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월 23일까지 해당 누리집이나, 익산시 종합민원과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평가를 거쳐 가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소중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9억 8천만원 투입해 승강장 정비

시민 불편 사항 반영
대중교통 편의 강화

정읍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9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대대적인 승강장 정비에 나선다.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해 승강장 신규 설치와 노후 시설 개선, 편의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먼저 노후화되거나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30개소)에 3억 4,000만원을 투입한다.

또한, 승강장 지붕 누수 보수 등 285건의 시설물 정비에 1억 8,700만원을 배정했다.

특히 겨울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추위를 녹여줄 △탄소 연열 의자(발열 벤치)를 50개소에 설치하는 데 1억 5,500만원을 투입해 편의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1억 1,300만원을 들여 연 4회 승강장 청



정읍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9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대대적인 승강장 정비에 나선다.

소 용역을 실시하고, 4,000만원을 투입해 승강장 표지판 40개소를 정비해 시민 인성을 개선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여 시민들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예산 소진으로 미처 조치하지 못했던 민원 사항까지 이번엔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아름다운 나눔 릴레이’ 잇달아

원할머니 보쌈족발 수송점
베스트약국, 정기후원 동참

군산시 드림스타트에 연초부터 사랑의 나눔이 잇달아 이어지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22일 원할머니보쌈·족발 군산수송점(대표 유현신)과 베스트약국(대표 백미선)이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 정기후원 협약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드림스타트 사업의 첫 민간 후원 사례로, 지역 상생과 나눔 문화 확산에 의미가 크며,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정기적인 식생활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후원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협약을 통해 원할머니보쌈·족발 수송점은 매일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 4가구에 각 5만 원 상당의 모듬 보쌈 세트를 정기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군산시 베스트약국(대표 백미선) 역시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원할머니보쌈 도시락(월금 1,680,000원 상당)을 총 10가정에 12개월 정기후원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유현신 원할머니보쌈·족발 수송점 대표는 “지역에서 장사하는 만큼 지역 아이들과 가정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라며, 우리가 정성으로

만든 보쌈 한 끼가 가족에게 따뜻한 시간과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베스트약국 백미선 대표도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가계로 자리 잡고 싶다”라고 밝혔다.

군산시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지역의 뜻 있는 가계들이 후원 사업에 연이여 참여하며 나눔의 온기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드림스타트 역시 더 많은 가정과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 성료

유소년~성인 2,200여명 참가

익산에서 태극마크를 향한 전국 최정상 펜싱 선수들의 승부가 펼쳐진 가운데, 익산시청 펜싱팀이 금메달로 새해를 함차게 열었다.

익산시는 22일 ‘2026 대한펜싱협회 유소년 국가대표 선발전’과 ‘전국 남녀종목별오픈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11일부터 22일 까지 대한펜싱협회 주최, 전북특별자치도펜싱협회 주관으로 익산시 실내체육관과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열렸다.

남녀 사브르와 에페, 플레레 전 종목에 걸쳐 전국에서 선수가 임원 등 2,200여 명이 참가해 국가대표 선발

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특히 유소년(2009~2012년생) 국가대표 선발전부터 일반부 국가대표 선발대회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차세대 유망주 발굴과 대한민국 펜싱의 미래를 가능케 하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됐다.

익산시청 직강운동경기부 펜싱팀도 이번 대회에서 값진 성과를 거뒀다.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권상우·권영준·양윤진·정병찬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는 정병찬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시는 앞으로도 우수한 체육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목의 대회와 훈련을 유치해 스포츠 도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정읍시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오는 2월 4일까지 수박, 애플망고 등 지역 특화 품목 재배 농가에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채소, 과수, 화훼류 재배를 희망하는 지역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읍시 육성 품목과 아열대 과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우선순위로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내용은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관수 시설, 자동 개폐기 설치 등이 포함된다.

지원 가능한 비닐하우스 면적은 최소 660㎡에서 최대 4,000㎡까지로, 영농 규모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소득 원예·특작 분야 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귀농·귀촌 문턱 낮춘 익산시, 지원사업 자격 완화

익산시가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제도 문턱을 낮추고,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귀농귀촌인의 주거 안정과 영농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다음달 6일까지 ‘2026년 귀농·귀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은 △귀농 청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4개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용자)사업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2개소) 등 총 6개다.

특히 시는 보다 많은 귀농귀촌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개정해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가장 큰 변화는 연령 제한 폐지와 전입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65세 또는 70세까지로 연령 제한과 전입 3년 이내 조건이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연령 제한 없이 전입 후 5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귀농·귀촌 지원 대상을 확대해, 귀농을 준비하면서도 자격 요건 때문에 망설였던 이들이 익산 정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주의 당부

겨울철을 맞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군산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3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10~100개의 소량의 바이러스 입자만으로도 감염이 가능할 만큼 전염성이 높다.

특히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영유아가 생활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단체생활 시설에서는 직·간접 접촉으로 인해 감염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보건소는 개인위생 관리 및 예방수칙 준수를 적극 알리고 있다.

주요 예방수칙은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물 충분히 익혀 섭취하기 △끓인 물 마시기 등이 있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 노



로바이러스 의심 환자 신고가 증가하는 겨울철에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손씻기 지도와 조리·활동 공간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부안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전북도 주관 공모 선정 기업에 채용장려금 등 지원...인건비 부담 ↓

부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76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에 맞춰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관내 기업에 채용장려금, 마케팅 지원, 안전보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도비에 군비 1500만원을 더한 총 9100만원을 활용해 기업 체질 개선과 미취업자 고용 촉진,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부안군일자리센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이 어려운 관내 기업에 채용장려금(8개소)을 지원하고 기업 홍보 및 판로 확대를 통한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2개소)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보건 컨설팅(4개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지역산업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용장려금과 마케팅,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부안군일자리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미취업자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고용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청년 네트워크 동아리 모집

최대 2백만원 활동비 지원

고창군이 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고창군 청년 네트워크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 동아리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월 5일까지이며,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역 활동으로 연결해 청년 주도의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은 고창군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활동(직장·학교) 중인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동아리 구성원 중 60% 이상이 주민등록상 고창군 주소를 둔 청년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개소당 최대 20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청년 간 네트워크 형성, 취·창업 역량 강화, 문화·예술·지역 연계 활동 등 동아리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자율적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고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란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활동계획서, 예산 집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신활력경제정책관 3층 청년창업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yhd0627@korea.kr)로 가능하다.

최종 선정은 동아리 구성 규모, 활동 지속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5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들이 주체가 돼 서로 연결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 네트워크 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신영산업, 김제시에 이웃돕기 성금 5백만원 기탁...상생가치 확산 기여

김제시는 신영산업(대표 이준영)이 22일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신영산업은 지난 2023년에도 고창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나눔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준영 신영산업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신영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시는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인구 5만 지켜낸 고창군' 인구정책 성과

자연적 인구 감소 흐름 속 주민등록인구 유지

전북 고창군이 주민등록인구 5만명(2025년 12월말 기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인구감소 시대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나가고 있다.

단순한 숫자 방어를 넘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상생을 통해 인구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자연적 인구(사망·출생) 감소 흐름 속에서도 사회적 인구(전입·전출) 증가를 통해 주민등록인구 5만 명을 유지하며 지역 행

정·교육·경제의 최소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켜냈다.

이는 민선 8기 고창군의 인구지킴이 투트랙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던 분석이다. 먼저 고창군에선 최근 2-3년새 아파트 신축 분량과 특성화 중·고교의 선진으로 유입인구를 끌어 올렸다. 동시에 유출인구를 막는데도 총력을 펼쳤다.

인구 5만 지키기 범국민운동을 관내 유관기관·사회단체 등과 추진하면서 타지역 유출을 막아냈다.

고창군은 인구정책의 시선을 주민등록인구에만 두지 않았다. 군은 일찍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통근·통학·관광·체류·업무 등으로 지역을 찾는 사

람들을 지역 활력의 주체로 끌어들이고 있다.

농촌유학, 워케이션, 문화공동체 조성, 체류형 관광콘텐츠 확산 등을 통해 고창군의 생활인구는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고창군 생활인구는 4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7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누구나 고창에 오고 싶고, 오래 머물며, 상생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상생을 통해 인구 개념의 판을 바꾸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김제치과의사회와 구강건강 지원 협약

의치·보철·임플란트 지원

김제시는 지난 19일 김제치과의사회(회장 조승모, 아침에치과 원장)와 함께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내용은 △의치(틀니) 장착 및 시술 편의 제공 △임플란트 지원 △1년간 무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해 지역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 증진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도모다.

시는 오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해당 사업의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 대상자 선정 및 협약지

에 시술 의뢰 등 2026년도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시킬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의치·보철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임플란트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다.

시는 이번 사업 진행을 위해 자체 시비 4,0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시각 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으로 특히, 올해부터는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추진해 노인의 씹는 기능 회복과 영양 섭취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한울기획, 인재육성장학금 2백만원 전달

부안군은 지난 21일 부안을 부흥로에 위치한 한울기획(대표 김종삼)이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한울기획은 이벤트 기획 및 행사 대행업체로서 광고·판촉물·이벤트 기획을 통해 지역축제·행사 등에서 지역민들과 만나고 있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업체가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종삼 대표는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 기탁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 업체의 소중한 후원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기탁자의 뜻을 살려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고령친화 도시 조성사업 추진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등

김제시는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살기 편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2026년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4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3개년 실행계획에 따라 교통·주거·돌봄·여가 등 생활 전반의 환경 개선과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를 추진해 오고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도 함께 운영 중이다.

올해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어르신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주거환경

개선, 돌봄과 복지 서비스 접근성 확대에 힘쓰는 한편, 노인일자리 연계와 맞춤형 문화·여가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기 고령친화도시 재인증 준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시민 의견 수렴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어르신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며 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령친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원예특작 분야 대규모 투자

25억 6천만원 투입 농가 소득기반 강화

김제시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과 농산물 소비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기반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2026년도 원예특작 분야 자체사업에 총 25억 6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에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예특작 분야 사업은 FTA 등 시장 개방화와 농가 소득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충해 대내외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 지원사업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고소득작목 육성사업 △과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총 6개 분야의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하우스 설치보강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하우스의 개보수뿐만 아니라 신규 설치를 지원해 시설원에 농가의 현대화를 촉진

하고, 안정적인 농업소득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을 통해 딸기, 포도, 논농 등 시가 선정한 12개 전략 작목의 생산 시설 및 장비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이승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 위기와 유통 환경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작목 육성과 생산 기반의 현대화가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김제시 원예농업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심덕섭 군수 "군민 목소리 농치지 않겠습니다"

고창군, 나눔대학 성향 "군민 소통 행정 할 것"

심덕섭 고창군수가 14개 읍·면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2026활력고창 나눔대학'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덕섭 군수는 13일 고창읍을 시작으로 전날 송송면까지 5개 읍·면 방문을 마쳤고, 나눔대학은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된다.

심덕섭 군수는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군정계획을 보고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새로운 의견도 경청했다.

군민들도 폭설과 한파에도 준비된 좌석을 가득 메우고, 통로에까지 자리 잡으며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올해부터 1개 읍·면에 하루씩 일정을 배정해 조금 더 심도깊은 논의의 장이 이어지고 있다.

고창읍에선 "마을 앞에 스포츠타운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하천을 건널 다리가 놓여 있지 않아 먼길을 돌아가야 한다"며 다리 건설을 건의했고, 신림면의 한 주민은 "마을회관이 오래돼 벽면 곳곳에 균열이 생겨 불안하다"고 안전진단



심덕섭 고창군수가 14개 읍·면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2026 활력고창 나눔대학'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인구유입정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심덕섭 군수는 현장에서 군민들의 군정 사항에 관한 고견과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틈틈이 개인수첩에 메모하는 열정을 보였다.

고창군은 현장 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추진 여부와 해결 방안을 검토

하고, 결과에 따라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덕섭 군수는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주민에게서 읍·면발전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 있었고, 군민의 호된 지적도 함께 이어져 정말 허심탄회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농업기술센터, 한파 대비 노지작물 동해 예방 철저 당부

부안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5일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지역 내 농가에 보리·밀·마늘·양파 등 노지작물과 시설하우스의 동해(인 피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교적 포근한 날씨로 인해 작물의 생육이 재개되거나 토양의 수분 함량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한파가 이어질 경우 동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토양이 녹았다가 다시 어는 과정에서 서릿발 발생 및 뿌리 들림 현상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센터는 노지 월동작물 재배 농가들에게 배수도 정비를 통해 습해를 방지하고 답압(흙 눌러주기) 작업으로 작물 뿌리의 동결·들림 피해 예방, 한파에 약한 작물은 비닐 멀칭 또는 부직포 덮기로 지면 온도 유지, 시설하우스는 낮 시간대 기온이 상승할 경우 일시적으로 피복을 열어 내부 습도를 조절하고 결로로 인한 병 발생 예방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양년 센터 소장은 "시설하우스 보온 강화와 노지작물의 서릿발 피해 예방 등 기본 관리 사항을 철저히 하고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순창군, 중소기업 체감 맞춤형 지원 박차

환경 개선 70% 최대 1천만원 지원 박람회 부스비 지원 판도 확대 교통·청년 정주까지 촘촘한 뒷받침

순창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근무환경 개선부터 금융 지원, 인력 정착까지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지원하며,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먼저 근무환경과 복지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등 복지 편의시설은 물론, 소음·악취 저감장치와 환기시설 등 근무환경 전반을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70%,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외부 주력을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임차료의 80%(월 최대 20만 원)를 지원하는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해, 외지 근로자 유입과 고용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순창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사진=순창군>

또한 순창군은 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한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도 운영 중이다. 서울 코엑스, 일산 킨텍스 등 대형 전시회 참가 시 부스 임차료의 80%를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해, 관내 기업들이 전국 단위 바이어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눈에 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기업이 대출한 자금의 이자 최대 4%를 군이 지원하며, 지난해 12개 기업이 총 32억 원 규모의 용자를 통해 지원받았다.

출퇴근용 승합차량에 대해 유류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돼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청년층 정착을 위한 주거 인프라도 착실히 준비 중이다.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은 총 70억 원 규모로, 2026년 7월 완공을 목표로 40실 규모를 조성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기업이 대출한 자금의 이자 최대 4%를 군이 지원하며, 지난해 12개 기업이 총 32억 원 규모의 용자를 통해 지원받았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의회 “도지사 방문 연기는 책임 전가”

“갈등 원인 도정에 있다 정치적 언어로 혼선 키워”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지난 21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발표한 '완주군 방문 잠정 연기' 입장문과 관련 “이번 발표는 갈등 해소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책임을 완주군과 군민에게 전가하는 정치적 언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유 의장은 “도지사는 방문 연기의 이유로 ‘갈등 격화 방지’와 ‘민주주의의 시간’을 언급했지만, 안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군민이나 완주군의회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사전 협의도, 공식적인 정부 절차도, 군민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통합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는 선언부터 앞세운 도정 운영이 오늘 갈등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제 와서 갈등을 이유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마치 완주군의회와 지역사회가 갈등의 주체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21일 김관영 도지사 '완주군 방문 잠정 연기' 입장문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완주군의회>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며, 군민의 자존과 지방의회의 책무를 훼손하는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장은 “도지사가 진정으로 갈등을 우려한다면, 방문 연기는 상징적 조치가 아니라 △통합 논의의 공식 중단 △군민 동의 없는 정치적 발언 자제 △기초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존중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먼저”라고 촉구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무형유산 천철석 소목장 전시회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인 천철석 소목장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전시 '나무의 결, 삶의 향기'가 열리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돼 오는 7월 19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 제4전시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전통 소목(木工) 기법을 바탕으로 일상 속 목가구를 제작해 온 장인의 철학과 시간의 깊이를 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자리다. 소목장은 나무가 지닌 고유한 결을 살린 다양한 전통 가구를 통해 소목의 미학과 장인정신을 담아냈다.

“너나무, 오동나무, 참죽나무, 먹감나무, 홍송 등 여러 수종을 활용해 제작한 전통 가구 15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옷칠도 마감된 작품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짙어지는 색감과 질감을 선사한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예기장, 반딧단, 사방탁자, 문갑 등이 있다.

천철석 소목장은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의 생활 속에서 소목 가구의 의미와 쓰임을 새롭게 전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일상의 속도 속에서 삶의 결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전통 소목의 제작 철학과 기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목공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으로, 관련 문의는 삼례문화예술촌 홈페이지(samnyeocav.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90-3862, 3848)로 하면 된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23개 읍면동 ‘시민공감 소통한마당’ 개최

22일 산동면 시작 12일간 순회 주민 질문 현장 답변 방식 진행

남원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과의 현장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읍·면·동별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2일부터 산동면을 시작으로 2월 6일까지 12일간 관내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6 시민공감 소통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소통한마당은 그동안 남원시가 추진해 온 현장 중심 행정과 시민 참여형 시정 운영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점검하고, 현재의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의 남원 발전 비전을 함께 그려 나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시민공감 소통한마당은 변화의 흐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는 읍·면·동 회의실 등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읍·면·동 일 반현황과 주요 현안사업을 공유한 뒤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 시간을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형식적인 보고를 지양하고, 시민의

질문에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는 참여형 소통에 중점을 둔 실질적인 공감과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읍·면·동 스마트 경로당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계해 어르신들과 세대 인사를 나누는 등 세대와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제안함을 통해 사전에 접수된 건의사항 가운데 일부는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로 이관해 검토·회신해 시민의 제안이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문화선도산단 TF 가동...공조체계 구축

문화선도산단 신설 8팀 16명 참여 일정·과제 점검 행정절차 속도

완주군이 1월 1일자로 '문화선도산단'을 신설하고, 관련 부서·유관기관 특별팀(TF)을 통해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최근 이종훈 완주부군수 주재로 특별팀(TF)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부서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사업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관계자(총 8팀 16명)가 참석해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부서 간 역할 분담과 협업 과제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랜드

마크 조성, 청년문화교육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의 세부 추진 일정과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사업에 반영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군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사업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수행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종훈 완주부군수는 “특별팀을 중심으로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개별 사업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절차로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새 희망 창업교육' 최대 5천만원 특례보증

예비창업자 실무교육과정 운영 1대1 컨설팅·멘토링 등 지원

완주군이 예비 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 준비와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완주 새 희망 창업교육' 참가자를 오는 26일부터 2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창업교육은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 준비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역량부터 실제 사업화에 필요한 실천 노하우까지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과정(30시간)과 심화과정(20시간)으로 구성되며, 총 50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기초과정은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심화과정은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운영된다.

대상은 완주군 내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로 외국인의 경우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고, 모집 인원은 20명 내외로 계획돼 있다.

교육 내용은 △창업 절차 이해 및 성공 사례 △정부·지자체 창업지원 제도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전략 수립 △SNS 활용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으로 편성됐다.

특히 심화과정에서는 상권·입지 분석, 사업 타당성 검증, 실습 기반 사업계획 수립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화 준비 과정이 제공된다.

이번 과정은 전문 창업 컨설턴트의

1:1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링을 함께 지원해 교육생들이 자신의 아이템을 현실에 맞게 점검하고, 창업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창업자금 지원 특전도 주어진다. 1단계(기초과정) 수료자는 최대 3,000만 원, 2단계(심화과정) 수료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창업자금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우수 교육생에게는 맞춤형 디자인지원 사업 가산점도 부여된다.

유희대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창업 도전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자금 지원을 촘촘하게 연계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세외수입 증대방안 보고회...세입 확충 총력

2026년 세외수입 167억 5.4%! 감소 원인 분석 대응책 논의

순창군은 지난 21일 부군수실에서 '2026년 세외수입 증대방안 보고회'를 열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전망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세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세입총괄부서장과 각 세입부서의 팀장, 예산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광희 부군수 주재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2026년도 세입 전망과 함께 세외수입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세입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년도 순창군 일반회계 예산은 총 5,597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는

246억 원, 세외수입은 167억 원으로 편성됐다. 지방세는 일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약 5.4% 감소 요인으로는 수수료·사용료, 이차수입 등이 포함된 경상적 세입의 감소로 분석됐다.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세입 감소의 원인과 대응 방안, 온라인 홍보를 통한 수수료·사용료 수입 확대,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보건군수료 증대 방안, 자동차 과태료 이월 체납액 축소 방안, 공공요금 이차수입의 관리 및 효율적 운용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또한, 보통교부세와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대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책값 돌려주기 사업' 지원 규모 확대

만족도 93.5%...4만→5만원 상향 작년 124명 참여 예산 조기 소진

남원시는 시민들의 독서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서점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책값 돌려주기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만족도 조사 결과와 시민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1인당 월 지원 한도를 기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했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시민이 남원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한 뒤, 구입 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남원시공공도서관 3개소 중 1곳에 구입 도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1인당 월 2권 범위 내

에서 최대 5만원까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6년에는 △여울림도서관 △시립도서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3개 공공도서관과 △남원현서점(도봉동) △비니루없는점(쌍교동) △비본책방(노암동) △살롱드마고(도봉동) △신성지서점(향교동) △진서점(하정동) △찬장과학장(산내면) 등 7개 지역서점이 참여한다.

사업은 2020년 시작 이후 이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해 2025년에는 1,241명이 참여해 2,160권 도서반납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됐고 조사 결과 시민 만족도는 93.5%, 도서관 이용 만족도는 94.7%로 나타나 시민 제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원시는 2026년 '책값 돌려주기' 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해 운영한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 누적 참여 시민은 6,617명, 반납 도서는 11,824권이다. 2026년에도 SNS 공유 챌린지 등 시민 참여형 독서 캠페인을 병행 추진해 사업 홍보와 참여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춘향제 담당자 업무 인수인계 워크숍

제96회 춘향제 본격 시동

남원시는 제95회 춘향제 담당자와 새롭게 배치된 제96회 춘향제 담당자 간의 원활한 업무 소통과 체계적인 인수인계를 위해 22일 춘향제 업무 인수인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제95회 춘향제 추진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 경험과 성과,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담당자 교체에 따른 업무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제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워크숍에서는 △제95회 춘향제 주요 추진 경과 및 운영 성과 공유 △분 야별 문제점과 개선 과제 분석 △축제 추진 시 유의 사항 및 실무 노하우 전수 △제96회 춘향제 추진 일정 및 역할 분담 논의 등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새롭게 배치된 담당자들이 축제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준비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장수군, 치유농업 역량강화 플로리스트 교육생 모집

장수군은 원예 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감 증진을 위해 '치유농업 역량강화(플로리스트 과정 1기)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상 속 작은 변화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와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수군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goopy@koreakr)을 통해 가능하며, 재료비 100,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교육은 2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총 10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 장소는 장수군농업기술센터 1층 가공연구실이다.

교육 내용은 '장수 꽃사랑 플라워 디자인'을 주제로 △나만의 꽃다발 △자유화형 꽃꽂이 △테이블 센터피스 △리츠 만들기 등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어, 참가자들이 원예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관련 문의는 장수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063-350-2832)으로 하면 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본격 가동

임실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임실군은 최근 기온 변화와 개체 수 증가로 인해 야생동물의 농경지 침입이 잦아짐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작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공개 모집을 통해 수렵 면허를 취득한 지 5년 이상 된 경험이 풍부한 관내 모범 수렵인 40명을 피해방지단으로 선발하였으며, 지난 15일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정영국 전북지부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총기 안전 교육, 야생동물관리시스템 사용법,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시 준수사항을 교육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 준비를 마쳤다.

또한, 시군 경계지역에 광역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접근 경로를 차단하는 광역차단시설 사업 예산을 도내에서 유일하게 확보하는 등 피해예방에 대한 임실군의 적극적인 태도는 매년 농작물 피해로 인해 근심하는 농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선정자 교육 실시

진안군은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국비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청년농업인 14명을 대상으로 신규 선정자 교육을 실시했다.

앞서 진안군은 2025년 11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1차 대상자를 모집하고, 서류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미래 농업에 이끌 청년 농업인을 선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선정자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영농정착지원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바우처 카드 발급 절차,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및 사용 기준, 영농 이행에 따른 의무 사항 안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는 최대 3년간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이 지급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N치즈, 페루에서도 연수 온다

페루 국립공과대 방문단 낙농 유가공산업 고도화 모델로 임실치즈 벤치마킹

임실N치즈가 페루의 국가농업 경쟁력 강화와 인재육성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며 국제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임실군에 따르면 남미 서부에 위치한 페루 국립공과대학교 에르메스 부총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이 지난 21일 임실군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페루 정부가 UN 협력자금을 활용해 추진중인 낙농·유가공 산업 고도화와 청년 기술인재 양성 정책의 일환으로 국립공과대학교 내 치즈 가공시설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표 치즈 특산지인 임실군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페루는 최근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소득 증대를 국가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단순 원유생산을 넘어 부가가치가 높은 치즈 등 가공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60여년의 역사와 체계적인 산업생태계를 갖춘 임실N치즈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주목받으며 이번 교류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임실군에 따르면 남미 서부에 위치한 페루 국립공과대학교 에르메스 부총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이 지난 21일 임실군을 찾았다

에르메스 부총장 일행은 임실치즈마을의 공동체 운영방식과 지역 기반 유가공 산업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목장형 유가공업체와 임실치즈테마파크 치즈역사문화관 등을 차례로 견학했다.

특히, 스마트 제조설비와 자동화생산 시스템, 체계적인 품질관리시스템 등은 페루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차원의 치즈산업 육성전략과 직접 맞아떨어지는 분야로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페루 국립공과대학교는 향후 치즈가공시설을 설치해 치즈가공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페

루 국립공과대학교 대학생과 임실지역 낙농가의 교류를 통한 유가공 산업연수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임실군은 기존 홀스타인 중심의 유제품 생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저지중 젖소 육성과 저지중 원유를 활용한 숙성치즈, 무가당 요거트 등 고품질·프리미엄 제품 개발에 주력하며 임실N치즈를 지역특산품을 넘어 국가전략형 농식품모델로 육성하고 있다.

이번 페루 국립공과대학교 대표단과의 교류를 통해 임실치즈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2026년 군민과 대화 성황리 마무리

최군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장수군은 22일 장계면 일정을 끝으로 '2026년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 및 '농어촌 기본소득 설명회'를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군민과의 소통은 지난 19일 장수읍을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경로당 현장 의견청취 △군정 운영 방향 설명 △농어촌 기본소득 설명 △군민과의 대화 순으로 운영됐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과 눈높이를 맞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

했고 군민이 묻고 군수가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자유롭고 열린 소통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해 국·과장 등 군 주요 간부들이 동석해 군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답변하고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안내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

특히 올해는 전 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가 시작되는 뜻깊은 해로 기존의 소통행사에 '농어촌 기본소득 설명회'를 병행하여 정책 추진 배경과 방침 등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설명하고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이번 대화에는 총 120여 건의 제안과 건의사항이 접수됐으며 장수누리랜드

명품관광지 조성, 파크골프장 조성, 실내체육관 건립, 상수도 물복지 확대사업, 참샘골 행복주택 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 군정 핵심 현안도 공유됐다.

장수군은 접수된 건의 사항을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군정에 반영하고 주요 현장을 직접 점검해 장수발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창구이다"며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준비 박차

조례 제정·전담팀 구성

무주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가시화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11월에는 사업 추진을 전담하는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 이어 12월에는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무주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주군 기본소득 위원회'를 구성했다. 14명의 위원은 무주형 기본소득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16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조

찬환 위원장과 허동일 무주기본소득 연대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회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지침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비롯해 사업의 본격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진행 절차 등도 함께 공유했다.

노창환 무주군 기본소득 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의 주요 쟁점 사항인 타 복지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에 관한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이 되고 노동 간 소득과 사회 서비스 격차 또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군민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동력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라며 "무주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에 더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지난 19일에도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무주군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주민 홍보를 통해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 창단식 개최

역도선수단 이어 두 번째 호남지역 지자체 중 최초 테니스 선수단 구성

진안군은 22일 오후 군청 강당에서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단식에는 대한테니스협회 관계자를 비롯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시군 테니스협회, 진안군 테니스협회 동호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선

수단 출범을 축하했다. 행사는 선수단 창단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선수단 소개, 창단선언 및 창단기 전달, 내빈 축사, 유니폼 및 라켓 전달식 순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번에 창단된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은 감독 1명(조효익), 선수 4명(임은지, 김민서, 임세민, 이현이)으로 구성됐다.

선수들은 국가대표 상비군 경력 또는 주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실

력파들로, 향후 각종 전국대회에서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진안군청 테니스선수단은 역도선수단에 이어 진안군이 두 번째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로, 호남지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테니스 종목으로는 최초로 유일한 직장운동경기부다.

선수단은 올해부터 각종 대회에 출전해 진안군과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선수단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생 모집

30일까지 교육 희망자 모집

무주군은 오는 30일까지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강 신청은 각 읍면 산업팀, 농업인상담소,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063-320-2869)을 통해 하면 된다.

교육 관련 세부 내용은 무주군 홈페이지(https://www.muju.go.kr)알림마당->공시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농업인 역량 강화

를 위한 것으로, '내추럴초이스'의 박근형·김소영 강사와 '식품위생안전정보원' 전윤기 강사가 총 8회에 걸쳐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내 가공교육장에서 △농산물 가공 산업의 필요성, △가공 기술, △식품위생과 안전관리, △마케팅 및 소규모 유통 전략 등 기초 이론을 교육한다.

무주군은 이번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위생·안전 및 장비사용 심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통합돌봄 체계 구축 본격화

16일 통합지원협의체 출범

임실군은 지난 16일 2층 회의실에서 임실군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및 자문기구로 위원장인 심민 군수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의료·복지·학계·현장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 지역 주민이 살던 곳(집)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분야별 서비스를 연계 조정하는 민관 협력기구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들은 이날 위촉과 함께 3월 27일부터 추진할 '통합돌봄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확인했다.

또한 주요 사업으로 방문 의료와 일상 돌봄, 주거지원 서비스 등에 대해 논의하고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제공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2026년 상반기 농공단지 기업간담회' 개최

진안군은 22일 홍삼한방 다목적복합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농공단지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2026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진안군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추진 해오고 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전북중소벤처기업청) △전북경제진흥원(전북중소벤처기업청) △전북경제진흥원(전북중소벤처기업청)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착수 보고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플러스 사업 운영 결과 보고 등이 진행됐다.

특히,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개별 기업의 처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환경 인프라로 기업 경쟁력 제고와 투자 유치 기반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보였다.

더불어 기업인들은 군정의 기업지원 시책과 산업단지 기반 시설 확충 계획 등을 함께 논의하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하기도 했다.

진안군수는 "기업이 잘 돼야 지역도 성장한다"며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산림분야 종사 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장수군은 지난 21일 군민회관에서 산림분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분야 종사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림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행동 및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산림사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중심으로 △산림분야 사업 안전관리 중점사항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발생 시 관리 방법 등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임업사업장 및 운송 장비 안

전관리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도 함께 포함돼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산림사업 특성상 야외 작업과 중장비 사용이 잦아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스스로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산림분야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새농민회, 김제시에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김제시는 새농민회(회장 정성우)가 22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으로, 추운 겨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우 새농민회장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을 먼저 생각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새농민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나눔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위료가 되고,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무장면 거동불편 어르신,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고창군 무장면 거동불편 어르신이 익명으로 100만 원을 기탁해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최근 무장면 주민행복센터에는 한 어르신으로부터 가정방문을 진행해 달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해당 주민은 폐에 물이 차 병원에서 물을 빼는 시술을 받은 직후였으며, 허리 통증으로 거동이 곤란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어르신은 이불 속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며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본인 또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먼저 떠올리며 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강필규 무장면장은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신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어르신의 소중한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이웃에게 정성껏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 정읍 농협, 고향사랑기부금 4,000만원 상호기부

올해까지 3년간 마음 전해

지난 21일 고창군과 정읍시 지역 농축협 조합장과 시군지부장들이 고창군청을 찾아 상호 기탁식을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고창군수와 김성훈 농협중앙회 전북 총괄본부장, 이명정 고창군 지부장, 김순기 정읍시 지부장과 8개 농협 조합장들이 참석해 총 4000만원을 기탁했다.

고창·정읍 농협은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2024년·2025년 각각 4000만원에 이어

올해까지 3년간 상호간에 마음을 전해왔다.

고창군은 NH농협 군지부 외 6개 농·축협, 정읍시는 시지부 외 8개 농·축협이 이번 상호기부에 참여했다.

고창군수는 "정읍은 지리적으로 고창과 가까운 이웃이며, 농업과 농촌이라는 공통 현안을 함께 안고 있다"며, "소중한 기탁금이 농업·농촌 발전과 지역 활력 제고에 쓰일 수 있도록 책임있게 운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 정읍시지부, 취약계층에 200만원 기탁

정읍 지역 낙농인들이 정읍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정읍시지부(정읍연합낙우회, 회장 이민환)는 지난 20일 정읍시청을 찾아 희망 2026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으로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민환 회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기탁을 결정했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돼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2017년부터 요양시설·아동시설 등에 우유를 기부해오고 있으며, 2021년부터 공유냉장고에 매주 우유 150개도 지원하고 있다.

기탁된 장학금은 정읍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돼 이들의 꿈을 키우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예정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진안 건축사모임, 장학금 400만원 기탁

아이들의 밝은 미래 위해

진안군 건축사모임에서 지난 21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기부금 4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아진 건축사사무소 김중원 건축사는 "진안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우리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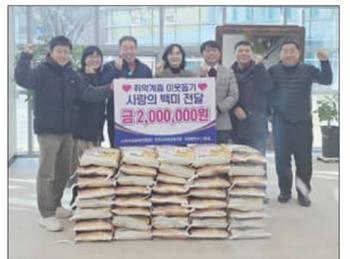
이에 전춘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본업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아주시는 진안군 건축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장학금은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 데 내실 있게 사용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장학금 지급 뿐 아니라,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 생활과학교실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진안군 관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진안=전결민 기자



진안군 건축사모임에서 지난 21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기부금 4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완주군 장애인 단체·기관, 완주 운주면에 백미 전달

완주군장애인연합회(회장 김덕연), 완주군 장애인복지관(관장 김정배), 희망발전소1호점(원장 이정득), 희망발전소2호점(원장 김병섭)이 완주군 운주면에 백미 10kg 40포를 후원했다. 후원받은 쌀은 관내 취약계층 장애인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덕연 완주군장애인연합회장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주면 장애인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군 장애인연합회는 기존에도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토마토 50박스 및 생닭 150마리 등 물품을 후원하는 등 꾸준히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장성태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지회장, 부안에 성금기탁

부안군은 장성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지회장이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로 장성태 회장의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금액은 총 800만원에 이른다.

장성태 회장은 ㈜태영기술공사를 운영하며 지역 기반의 기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엔지니어로 군을 비롯한 전북 도내 여러 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북 전반의 균형 발전과 연대를 응원하는 취지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장성태 회장은 "지역은 서로의 응원 속에서 성장한다고 생각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간 연대와 상생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신성수 기자



무주안성면 이일남 씨, 장학금 200만원 기탁

딸기육묘장운영수익금으로 기부

무주군 안성면 주민 이일남 씨가 22일 (제)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이 씨가 안성면에서 딸기 육묘장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의미를 더했다.

이일남 씨는 "자녀 넷 중 2명이 대학생이라 만뎀 장학금을 받고 있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무주에

서 받는 사랑과 응원을 나누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주에서 성장하는 어린 학생들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라며 "장학금에 담긴 마음이 든든한 용기가 되어 학생들의 건강한 꿈과 밝은 미래를 지지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일남 씨는 지난 2023년부터 꾸준히 장학금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저온화상 예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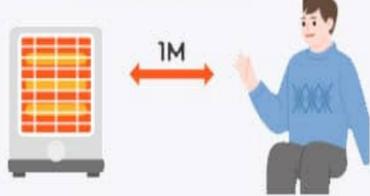
난방용품/ 온열기 사용시 주의사항

전기장판



- 온도 37도 유지
- 장시간 사용하지 않기
- 위에 이불 깔아서 사용
- 취침 전에 사용 시간 예약

온열난로



- 1m 이상 거리 두고 사용
- 틈틈이 로션을 발라 피부 보호

핫팩



- 접촉 부위 수시로 옮기기
-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
- 안전인증마크 받은 것 사용
- 부착용 핫팩은 옷 위에 부착

스마트 기기



- 노트북은 다리 위에 놓고 사용하지 않기
- 스마트폰은 얼굴에 오래 닿게 하지 않기

〈一事一言〉



사법은 왜 한덕수를 관용(寬容)하지 않았는가

김관순
주필

이행기 시인의 시 낙화에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공직자의 퇴장을 보는 가장 단정 한 기준으로 널리 회자돼 왔다. 하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택은 이 문장과 끝내 조우하지 못했다. 그는 멈출 수 있는 순간마다 한발 더 나아가고, 물러설 수 있는 기회마다 권력의 가장 위험한 중심부로 스스로를 밀어 넣었다.

그 결과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33부 이진관 재판부가 내린 징역 23년의 중형과 법정구속이라는 추상같은 결론이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전 총리 개인의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와 일부 판사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 누적되면서 키웠던 사법 불신을 오랜만에 되돌려 세운 결정적 분기점이다.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보다 8년이나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며 한덕수가 저야 할 책임의 무게를 정확히 판단했다.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자일수록 법 앞에서 더 엄격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문장과 형량으로 분명히 확인시킨 것이다.

재판부가 규정한 한덕수의 죄과는 명확하다. 그는 비상계엄이 라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 앞에서 제동을 걸 책무를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이라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고의로 누락하거나 형해화하며 불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

나아가 사후적으로는 선포문

조작과 허위 공문서 작성에 가담했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증과 증거 은폐 시도까지 드러났다. 이는 ‘어쩔 수 없는 동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식적인 참여였다. 재판부가 이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재판부의 재판 태도다. 이진관 재판부는 정치적 과장이나 외풍을 고려하는 대신, 증거와 법리만으로 사건을 해부했다. 상급자의 지시, 국가 위기라는 명분, 관행이라는 변명은 어떤 것도 불법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점을 단호히 배척했다. 이는 공직 사회 전반에 던지는 분명한 경고다. 헌법과 법률 위에 서는 권력은 없으며, 충성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헌정 질서여야 한다는 상식을 사법 정의로 복원한 판결이다.

12·3 내란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한덕수가 보인 행태는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는 국정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위헌·위법적 조치들을 정당화했고,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명백한 책무를 외면했다. 국정의 공백을 메우기는커녕, 자신의 정치적 명과 대권의 전염에 집착하며 헌법적 책임을 사유화했다. 권한대행이라는 임시적 지위는 질제와 중립을 요구하지만, 그의 행보는 오히려 권력 욕망과 계산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번 판결의 역사적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는 다가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과 김건희 관련 재판에

있어 중대한 법적 기준점이 될 것이다. 사법부가 내란의 개념과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는지, 고위 권력자의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선례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무너진 법치가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자정의 신호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이번 판결은 공직자의 책임 윤리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다시 세웠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고위 공직자 범죄는 ‘시대적 상황’, ‘국정 안정’,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유독 관대하게 다루져 왔다.

특히 대통령과 최측근, 권력 핵심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가 한없이 느슨해졌다는 것이 국민의 뿌리 깊은 인식이었다.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은 이러한 왜곡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냈다. 권한이 클수록, 자리가 높을수록 법적 책임은 더 무겁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비로소 현실의 판결문 속에 구현한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책임 회피형 권력’에 대한 명백한 경고이기도 하다. 한덕수는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을 조력자, 관리자, 중재자로 포장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그 허울을 하나하나 벗겨냈다. 국무총리는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할 최후의 방파제다. 그가 침묵하고 방관한 순간, 국가는 무너졌고 민주주의는 유린됐다.

재판부는 이 침묵을 죄로 규정했다. 이는 앞으로 어떤 고위 공직자도 ‘몰랐다’, ‘막지 못했다’는

말로 헌정 파괴의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국민이 이번 판결에서 느끼는 안도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것은 특정 인물의 처벌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사법이 아직 기능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 회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신뢰는 앞으로의 재판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만약 이 판결이 고립된 예외로 남는다면 사법 정의는 다시 냉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한덕수의 유죄 선고는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선 안 된다. 그것은 헌법을 배반한 권력자들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미래에 대한 예고편이다. 사법부가 이 원칙을 끝까지 견지할 때, 비로소 12·3 내란은 역사 속 범죄로 완전히 봉인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최후의 보루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사법부의 양심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그 양심이 아직 살아 있음을 증명했다.

국민들은 오랜만에 ‘법이 살아 있다’는 감각을 되찾았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몰랐던 노옥(老愚)에 찌든 한 인물의 몰락을 통해, 사법은 비로소 제자리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 이것이 바로 사법 정의의 복원이며, 우리가 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다.

기고 |

고창 고인돌유적지 채석장의 잠재적 가치



“신기하다. 이 거대한 돌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와서 옮긴 걸까?”

필자를 포함한 고창 고인돌유적지에 온 관람객들의 의문점 중 하나다.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고인돌유적지는 총 447기 고인돌의 밀집 분포지로 우리나라 최대 고인돌 밀집지라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고인돌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 상부에 자리잡아 있는 채석장(採石場 : 고인돌 축조의 원재료로 쓰였던 돌을 채석했던 장소)의 존재는 관람객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고창 고인돌유적지 채석장에서는 약 80개소의 채석흔이 확인되었다. 또한, 서쪽 서산산성

주변의 경우에는 원암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지만, 접근이 쉽지 않은 동쪽 봉우리 하단의 경우에는 원암은 온전히 남아 있다. 관람객들은 접근이 용이한 서쪽지역의 채석장을 탐방로를 통해 둘러 볼 수는 있으나, 채석장의 정보를 한 눈에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인돌이 존재하게 된 역사를 보여주는 채석장은 몇천 년 전 선사시대의 고인돌 의미와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채석장 관련 조사, 연구, 활용은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고창군 역시 과거 기록을 보면 1999년 전주대학교 박물관과의 협업으로 채석장의 범위와 채석흔을 기록화한 바는 있다. 다행히도, 최근 2024년부터 고창군은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기조 아래 2년 동안 항공 사진 촬영, 3D 스캔, 채석흔 및 암석 분석 등 채석장 정밀 실측 조사를 진행, 종합 정비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를 확보하게 되

었다.

이러한 조사·연구에 박차를 가해 고대 고인돌을 있게 한 채석장의 역사적 가치를 밝히고 고창지역의 문화 및 관광유산으로 가치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본다.

첫째, 유적지 근처 채석장의 존재는 고인돌의 원산지, 성격, 발전사, 석재의 이동 경로 등 앞으로의 연구 분야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채석장 관련 다양한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채석장의 역사적 가치와 기술적 연구를 논의하여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2년간(2024~2025)의 정밀 실측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채석장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채석장 주변의 수형(樹形) 잡기와 채석장 지형의 변형 우려가 있는 수목 등의 위험요소 정비를 시작으로 추후에는 채석장 경관까지 복원하여 후손

들에게 채석장의 소중한 가치를 남겨줘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채석장의 교육적 활용과 관광 자원화이다. 모두가 궁금하지만,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석장에 대한 관광 자원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보호와 보존을 넘어 관광산업이자 산업의 현장인 ‘이탈리아 카라라 대리석 채석장(2006년 세계유산 등재)’, 산업혁명 시기 슬레이트 생산의 중심지이자, 광산·운송·주거지 등이 독특한 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웨일즈 북서부의 슬레이트 경관(2021년 세계유산 등재)’의 사례를 모델로 삼는다면 향후 고창 고인돌유적지 채석장의 가치 창출과 관광자원화 가능성은 가히 뒤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채석장의 잠재적 가치를 높여 조 명받는다면 고창 고인돌유적지의 명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단언해 본다.

/정광진 고창군 세계유산과 고인돌유산 팀장

문화재 열전



용오정사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적건조물, 인물기념, 사우
- 지정일 - 1980년 3월 8일
- 소재지 - 고창군 덕림방축안길 4 (무장면)

사설 - 할인을 넘어 플랫폼으로, 전북투어패스의 진화

전북투어패스가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지역관광패스 부문에 선정됐다. 이는 전북 관광 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동시에 입증한 상징적 성과다. 이번 선정의 의미는 단일 관광지 중심, 단기 방문에 머물던 기존 관광 구조를 넘어 광역 단위 연계와 체류형 관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제로 구현해 왔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

전북투어패스는 201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광역형 관광패스로, 도내 14개 시·군에 흩어져 있던 관광지원과 체험 시설, 문화·전시공간, 교통과 음식점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냈다. 관광객은 별도의 입장권 구매나 복잡한 정보 탐색 없이 하나의 패스로 전북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이는 곧 여행의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로 이어졌다. '관광은 불편을 줄이는 산업'이라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구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더 주목할 대목은 관광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는 점이다. 특정 유명 관광지 에 인파와 소비가 쏠리던 구조에서 벗어나, 14개 시·군을 하나의 여행 동선으로 엮어 지역 간 관광 균형을 유도했다. 전북투어패스 이용객이 자연스럽게 여러 지역을 오가며 숙박과 소비를 늘리는 구조는 체류형 관광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약 14만 매가 판매됐고 자유이용시설 110여 곳을 기반으로 이용자 1인당 평균 4회 이상 가맹점을 이용하는 등 '이동→체류→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운영 방식 역시 평가받아 마땅하다. 전북도는 가

맹점 확대와 서비스 품질 관리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구조를 만들어 왔고 최근에는 프리미엄권, 외국인 전용 상품, 교통 연계 상품 등으로 상품을 다각화하며 이용자층을 넓히고 있다. 이는 전북투어패스가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명예의 전당 선정은 전북투어패스가 이제 전북 관광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음을 공식으로 확인해 준 계기다. 동시에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임을 일깨웠다. 디지털 기반 서비스 고도화, 콘텐츠 품질 관리, 지역 고 유성 발굴을 통해 전북만의 차별화된 여행 경험을 더욱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전북투어패스의 성과는 지역 관광 정책이 단기 이벤트나 일회성 홍보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운영과 데이터 축적, 이용자 경험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해 온 점이 오늘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었다. 앞으로는 계절·테마별 코스 개발과 농촌·생태·미식 관광과의 연계 등을 통해 전북의 생활문화와 일상을 관광자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질 때, 전북투어패스는 지역균형 관광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전북투어패스는 이미 가능성을 증명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성과를 지속 가능한 관광 경쟁력으로 넓히는 일이다. 전북 전역을 하나의 매력적인 무대로 만드는 이 실험이 국내를 넘어 해외 관광객까지 끌어들이는 성공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오늘의시

익는 술 / 이성부

착한 몸 하나로 너의
더운 허파에
가 닿을 수가 있었으면,
쓸데없는 욕심 걷어 차버리고
더러운 마음도 발기발기 씻어내고
너의 넉넉한 잠 속에 뛰어들어
내 죽을 과몰될 수 있었으면,
죽어서 얻는 깨달음
남을 더욱 앞장서게 만드는 깨달음
익어 가는 힘,
고요한 힘,
그냥 살거나 피 흘리거나
너의 곁에서
오래오래 씩을 수만 있다면.

시인 약력 : 1942년 광주광역시 출생. 경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일보에 기자로 일하다 전남일보 신춘문예에서 '바람'과 1961년 현대문학에서 '소모의 밤' 등이 추천돼 등단했다. 1967년 시 '우리들의 양식'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1969년, 3백부 한정판으로 간행한 첫 시집 '이성부 시집'으로 제15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이어 '화강암' '숨은 벽'과 연작시 '바위타기' 등의 시집을 발간했다. 대산문학상(2001), 제1회 가천환경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創刊 / 등록번호 전북가-00022(발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익산시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경영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26년 '김제청년과 함께' 도약과 성장으로 대전환!

김제시는 2026년 청년정책의 비전을 '청년의 오늘, 김제의 내일, 청년과 함께'로 정하고,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취업-창업-정착까지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에게는 미래 설계의 기반을, 지역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제공해 청년이 머물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의 변화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청년과 지역이 함께 번영하는 상생의 희망 도시 김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시는 2026년을 청년정책 도약과 성장을 위한 대전환의 해로 설정하고 신규사업을 통해 청년정책의 깊이와 폭을 동시에 확장하고, 취업-창업-정착을 하나의 흐름으로 잇는 '김제청년 희망로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청년정책의 제도적·재정적 안정망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 한해 김제시가 마련할 청년정책을 알아보자. (편집자 주)

★ 2026년, 청년정책의 무게중심을 바꾸다... '신규사업'으로 완성하는 성장의 디딤돌

■ 청년의 준비를 가깝게... 김제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험 응시 비용은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김제시는 2026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취업-창업-정착을 하나로 잇는 '희망로드 프로젝트' 추진

■ 취업-창업-정착을 하나로 잇는 '희망로드 프로젝트' 추진

주인등록상 김제시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며, 청년들이 비용 걱정 없이 역량 강화와 도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창업-창업-정착을 하나로 잇는 '희망로드 프로젝트' 추진

창업은 시작보다 이후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 김제시는 창업 이후 경영·마케팅·재무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기업을 위해 '창업청년 스케일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 사업은 김제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1:1로 매칭해 기업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단기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성장 전략 수립을 통해 청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지역을 넘어 세계로... 청년기업 수출 지원 '통상마스터 YOUTH'

김제시는 청년 창업기업의 무대를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 '통상마스터 YOUTH'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 사업은 수출 경험이 부족한 청년기업에 실무 전문가를 매칭해, 수출마케팅, 바이어 발굴, 통관·물류 등 복잡한 무역 실무 전반을 밀착 지원하며, 단순 대행이 아닌 노하우 전수를 통해 청년기업 스스로 수출 역량을 내재화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따른 시행착오 및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안정적인 신규 수출 판로를 확보하고 청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로벌 자생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시장과 만나는 기회... 청년창업 판로개척 지원사업

제품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기업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이 실제 소비자와 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청년창업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기업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돕고, 실질적인 매출 창출과 사업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김제형 성장 사다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 안정적인 시작을 위한 기반... 청년창업공간 시설개선 지원사업

창업 초기의 열악한 환경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김제시는 예비 및 기창업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자에게 1천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청년창업공간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해 작업 공간과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창업 초기 시행착오를 줄여 지속 가능한 창업 활동을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머무를 수 있는 도시'의 완성... 청년거주형 스테이케이션 '김제안(인)착'

청년정책의 마지막 퍼즐은 주거다. 김제시는 청년거주형 스테이케이션 '김제안(인)착' 사업을 신규 추진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주거공간을 판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김제형 정주 모델로 단기 체류가 아닌, 김제에 머물며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지방소멸 대응정책으로도 주목된다.

김제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연중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의 생애 단계와 정책 수요를 고려해 취·창업, 주거, 문화·참여,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사업 운영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기 위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연중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의 생애 단계와 정책 수요를 고려해 취·창업, 주거, 문화·참여,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사업 운영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 2025년,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으로 안정적인 지역 정착 도모 및 소통 선순환 구조 마련

■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도시, 창업 생태계 구축

김제시는 청년 창업 친화 생태계 조성을 청년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실질적인 지원의 집중을 위해 김제청년공간 E : DA(이다)를 중심으로 창업 인큐베이팅, 청년 커뮤니티,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총 146회 운영하며 청년활동의 거점 공간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도시, 창업 생태계 구축

김제시는 청년 창업 친화 생태계 조성을 청년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실질적인 지원의 집중을 위해 김제청년공간 E : DA(이다)를 중심으로 창업 인큐베이팅, 청년 커뮤니티,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총 146회 운영하며 청년활동의 거점 공간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또한, 청년 창업이 단발성 시도로 끝나지 않도록 예비창업부터 기반 단계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해 예비창업 7개사에 1억 9천3백만원, 기 창업 3개사에 6천만원을 지원하고,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으로 두목집(두부과자), 두유, 뇌 영양제 등 시제품을 개발해 초기 사업가로서의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다.

■ '머무를 수 있는 도시'의 완성... 청년거주형 스테이케이션 '김제안(인)착'

청년정책의 마지막 퍼즐은 주거다. 김제시는 청년거주형 스테이케이션 '김제안(인)착' 사업을 신규 추진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주거공간을 판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김제형 정주 모델로 단기 체류가 아닌, 김제에 머물며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지방소멸 대응정책으로도 주목된다.

김제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연중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의 생애 단계와 정책 수요를 고려해 취·창업, 주거, 문화·참여,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사업 운영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반을 마련하며 지역에 정착하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김제시는 민선 8기 동안 청년인구 비율을 꾸준히 17%를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 정책의 주체는 청년... 참여와 공동체 성과 김제 청년정책의 또 다른 변화는 '참여 방식'이다. 청년공감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홍보하고, 의견을 제안하며, 시정과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 정책의 주체는 청년... 참여와 공동체 성과 김제 청년정책의 또 다른 변화는 '참여 방식'이다. 청년공감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홍보하고, 의견을 제안하며, 시정과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 정책의 주체는 청년... 참여와 공동체 성과 김제 청년정책의 또 다른 변화는 '참여 방식'이다. 청년공감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홍보하고, 의견을 제안하며, 시정과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청년 커뮤니티 지원, 청년 네트워킹 행사 등을 통해 청년 간 소통과 공동체 활동을 확산해 관계가 머무는 도시 김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 청년만의 축제가 아닌, 모두의 축제로... 김제청년축제

지난해 9.19(금)~20(토) 이틀간 개최된 김제청년축제는 푸른 잔디 위에서 쉬고, 체험하며, 즐기는 피크닉형 축제로 과거·현재·미래의 청년이 한 자리에 모여 청년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전환을 시도했다.

■ 청년만의 축제가 아닌, 모두의 축제로... 김제청년축제

지난해 9.19(금)~20(토) 이틀간 개최된 김제청년축제는 푸른 잔디 위에서 쉬고, 체험하며, 즐기는 피크닉형 축제로 과거·현재·미래의 청년이 한 자리에 모여 청년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전환을 시도했다.

아울러, 공연·체험·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경계를 허물고, 청년의 문화와 에너지를 도시 전체로 확산시키며 시민 참여와 호응을 확대하였다. 또한, 청년들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를 통해 청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제3회 특장차 산업 박람회와 연계추진해 청년 및 가족 단위 시민 방문을 증대시켰다.

■ 청년만의 축제가 아닌, 모두의 축제로... 김제청년축제

지난해 9.19(금)~20(토) 이틀간 개최된 김제청년축제는 푸른 잔디 위에서 쉬고, 체험하며, 즐기는 피크닉형 축제로 과거·현재·미래의 청년이 한 자리에 모여 청년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전환을 시도했다.

앞으로 김제시는 2026년 청년축제를 더욱 고도화해, 청년을 중심으로 전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김제형 참여·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